

내 곡을 연주해 주는 은호에게

쇼팽이 들려주는 영웅 폴로네이즈



은호 쇼팽 선생님, 이 곡을 치면 제가 커다란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쇼팽 반가워, 은호야. 오늘은 손가락만 움직이지 말고, 음악이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는지 함께 들어 보자. 이 곡 안에서 네가 발견한 용기도 들려주렴.

폴로네이즈 A♭장조 Op.53은 피아노 독주곡이다. ‘영웅 폴로네이즈’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는 은호가 시간을 넘어 쇼팽을 만난다.

생각해 볼 질문

이 곡의 기본 조성은 무엇일까?

정답

A♭장조, 우리말로 내림가장조야. 독일어로는 As-Dur라고 해.

작은 연습 미션

연주하기 전에 ‘나는 이 곡을 어떤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을까?’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

고향을 마음에 담은 작곡가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은호

선생님은 프랑스에서 살았는데, 왜 폴란드의 춤을 썼어요?

쇼팽

멀리 살아도 마음속의 고향은 사라지지 않지.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음악과 춤의 기억이 새로운 피아노 음악으로 자라날 수 있단다.

쇼팽은 폴란드에서 자랐고, 1831년 파리에 도착한 뒤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의 음악에서는 폴란드의 춤과 문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생각해 볼 질문

작곡가가 다른 나라에 살면 고향의 음악을 쓸 수 없을까?

정답

쓸 수 있어. 기억과 문화는 거리를 넘어 창작의 재료가 될 수 있지.

작은 연습 미션

네가 살던 곳이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 기억은 밝은 소리일까, 조용한 소리일까?

하나, 둘, 셋! 당당한 걸음

폴로네이즈의 3박자



은호

세 박자면 왈츠처럼 빙글빙글 돌면 되나요?

쇼팽

같은 세 박자라도 걸음은 다를 수 있지. 폴로네이즈에서는 첫걸음의 품격과 그 뒤를 잇는 리듬을 느껴 보렴. 발걸음은 단단하게, 몸은 유연하게!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에서 유래한 3박자의 춤이다. 대표적인 리듬 한 가지는 8분음표, 16분음표 두 개, 8분음표 네 개로 이루어진다. 곡 전체가 이 모양만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볼 질문

대표 리듬의 첫 박에는 음이 몇 번 시작할까?

정답

세 번이야. 8분음표 하나와 16분음표 두 개가 첫 박을 채워. 한 마디는 여전히 세 박이야.

작은 연습 미션

발로 '하나-둘-셋'을 고르게 짚으면서 손으로 리듬을 쳐 보자. 빠르게 하지 않아도 좋아.

노앙에서 피어난 음악

춤이 커다란 피아노 이야기로



은호 이 곡은 사람들이 무도회에서 춤추도록 만든 곡인가요?

쇼팽 춤의 걸음에서 출발해도 음악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피아노는 작은 방 안에서도 넓은 풍경을 열어 주지. 춤의 성격을 담은 큰 이야기를 들어 보렴.

Op.53은 프랑스 노앙에서 작곡되었으며 보통 1842년 작품으로 소개된다. 첫 출판은 1843년이다. 실제 춤 반주를 넘어선 연주회용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질문

춤에서 나온 곡은 꼭 춤 반주로만 쓰일까?

정답

아니야. 춤의 리듬을 바탕으로 감상과 연주를 위한 큰 작품도 만들 수 있어.

작은 연습 미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어 보자. 장면이 바뀌는 듯한 곳에 표시하고, 네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적어 보자.

영웅은 어떤 소리를 낼까?

용기를 상상하는 여러 방법



은호

‘영웅’이면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을 떠올려야 하나요?

쇼팽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야기는 더 넓어도 좋아. 겁이 나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용감하지. 네가 생각하는 용기를 소리로 찾아보렴.

‘영웅’은 이 곡의 당당한 성격을 떠올리게 하는 별명이다. 음악이 특정 전투를 묘사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감상을 돕기 위한 우리의 해석이다.

생각해 볼 질문

이 곡을 듣는 사람 모두가 같은 장면을 상상해야 할까?

정답

그럴 필요는 없어. 리듬과 악보를 존중하면서도 각자 다른 장면과 감정을 발견할 수 있어.

작은 연습 미션

‘용기’에 어울리는 낱말 세 개를 골라 보자. 예: 당당함, 배려, 다시 도전하기.

주인공이 나오기 전

서주가 만드는 기대



은호 유명한 멜로디는 아직 안 나오는데 벌써 긴장돼요!

쇼팽 이야기도 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지. 서주는 '이제 잘 들어 봐!' 하고 귀를 깨워 줘. 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며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지 느껴 보렴.

서주는 주요 주제가 나오기 전의 시작 부분이다. 이 곡의 첫머리를 들으며 올라가는 움직임, 힘찬 제스처, 잠시 멈추는 지점을 찾아보자.

생각해 볼 질문

서주는 주요 주제와 같은 뜻일까?

정답

아니야. 서주는 시작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주요 주제는 곡을 대표하는 중요한 음악 생각이야.

작은 연습 미션

서주를 듣고 손으로 선을 그려 보자. 음악이 올라가는 곳과 숨을 고르는 곳을 네 방식으로 표시해 보렴.

당당하게, Maestoso

큰 소리 안에서도 품격 있게



은호 주제가 나왔어요! 더 세게 치면 더 영웅적일까요?

쇼팽 먼저 소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들어 보렴. 모든 음을 똑같이 세게 치면 문장의 뜻이 흐려질 수 있어. 크고 풍성한 소리 속에서도 중심을 찾는 거야.

Maestoso는 장엄하고 위엄 있게라는 뜻이다. 이 곡의 주요 주제를 연주할 때는 강한 소리와 안정된 박, 긴 프레이즈를 함께 생각하자.

생각해 볼 질문

Maestoso는 무조건 더 빠르게 치라는 뜻일까?

정답

아니야. 음악의 장엄하고 위엄 있는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야.

작은 연습 미션

짧은 주제 한 구절을 말로 읽듯 연주해 보자. 가장 중요한 음을 하나 정하고, 그곳까지 자연스럽게 이어 가렴.

두 손이 함께 만드는 장면

선율과 바탕을 나누어 듣기



은호

양손에 음이 많으니까 모두 또렷하게 크게 쳐야 할까요?

쇼팽

모두가 동시에 크게 말하면 이야기를 알아듣기 어렵겠지? 지금 누가 노래하고 누가 받쳐 주는지 찾아보렴. 그 역할은 구절마다 바뀔 수도 있어.

음악에는 선율, 베이스, 화음, 리듬이 함께 있다. 언제나 오른손만 주인공인 것은 아니다. 각 구절에서 들려야 할 성부를 찾아 균형을 만들자.

생각해 볼 질문

오른손은 항상 선율이고 왼손은 항상 반주일까?

정답

항상 그렇지는 않아. 악보와 소리를 살피며 그 순간의 역할을 찾아야 해.

작은 연습 미션

한 구절에서 가장 잘 들려야 할 선율을 먼저 노래하자. 그다음 바탕을 조용히 더하며 소리의 균형을 비교해 보렴.

갑자기 다른 문이 열렸어!

중간부에서 만나는 E장조



은호 방금 전과 공기의 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쇼팽 익숙한 길에서 새로운 풍경으로 들어간 느낌이지? 조성이 바뀌면 같은 피아노도 다른 빛을 낼 수 있어. 이 낯선 문 뒤에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는지 들어 보렴.

중간부에서는 E장조가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작품의 기본 조성 A♭ 장조와 다른 조성이다. 색깔이나 풍경으로 느끼는 것은 소리를 이해하기 위한 비유다.

생각해 볼 질문

E장조 구간이 나왔다고 작품 전체의 기본 조성이 바뀔까?

정답

아니야. 곡 안에서는 다른 조성으로 여행할 수 있어도 이 작품의 기본 조성은 A♭ 장조야.

작은 연습 미션

A♭ 장조 주제와 E장조 중간부를 이어서 들어 보자. 차이를 소리의 밝기, 밀도, 움직임 같은 말로 적어 보렴.

왼손 옥타브의 긴 달리기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 노래하기



은호 왼손이 계속 움직여요. 끝까지 힘을 꼭 줘야 하나요?

쇼팽 귀로 고른 흐름을 찾고, 몸에는 불필요한 힘이 쌓이지 않게 하렴. 빠르기보다 편안한 움직임을 먼저 배워야 해. 오른손의 이야기도 잊지 말고 들어 보자.

유명한 중간부에서는 반복되는 왼손 옥타브가 추진력을 만든다. 옥타브는 같은 이름의 음이 여덟 음계 자리만큼 떨어진 간격이다. 손 크기와 몸 상태에 맞춰 선생님과 연습 방법을 정하자.

생각해 볼 질문

옥타브 구간을 잘 치려면 빠르기만 고르면 될까?

정답

아니야. 고른 리듬, 소리의 균형, 편안한 움직임이 함께 필요해.

작은 연습 미션

선생님이 정한 짧은 단위를 느리게 연습하고 쉬어 보자.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으면 멈추고 선생님에게 알려야 해.

조용한 음악도 용감할 수 있어

서정적인 순간에 귀 기울이기



은호 지금 음악이 한결 부드러워요. 영웅이 쉬는 건가요?

쇼팽 그렇게 상상해도 좋아. 계속 크게 말하는 이야기보다 조용한 목소리가 있는 이야기가 더 깊게 들릴 때도 있지. 작은 소리에서도 문장이 어디로 가는지 들어 보렴.

힘찬 흐름 사이에는 보다 서정적인 성격도 나타난다. ‘영웅이 쉬는 장면’은 우리의 상상이다. 강약과 성격의 대비가 음악의 긴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

생각해 볼 질문

조용한 부분에서는 박과 프레이즈를 잊어도 될까?

정답

아니야. 작은 소리에도 맥박과 방향이 있어.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귀로 이어 가자.

작은 연습 미션

부드러운 한 구절을 먼저 노래한 뒤 연주해 보자. 숨을 쉬는 곳과 다음 음으로 이어지는 곳을 찾아보렴.

다시 만난 당당한 주제

여행 뒤에 들리는 익숙한 음악



은호 처음의 주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 반갑게 들려요!

쇼팽 처음 듣는 너와 여행을 마친 너는 조금 다르지. 익숙한 음악이 돌아오면 그동안의 장면도 함께 떠오를 수 있어. 다시 같은 음을 치더라도 귀는 새롭게 열어 두렴.

중간부의 여러 장면 뒤에 주요 주제가 돌아온다. 크게는 서주, 주요 부분, 중간부, 주요 주제의 귀환, 코다라는 길로 들어 볼 수 있다. 이는 감상을 돕는 간단한 길잡이다.

생각해 볼 질문

주제가 다시 나오면 앞의 음악을 아무 생각 없이 복사하면 될까?

정답

음과 리듬은 악보를 따르되,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귀환인지 생각하며 연주하자.

작은 연습 미션

처음 주제와 돌아온 주제를 비교해 듣고, 네가 느낀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자.

빠른 손보다 먼저 필요한 것

짧게 나누고, 듣고, 다시 연결하기



은호 외워서 빨리 칠 수 있는데 왜 천천히 연습해야 해요?

쇼팽 기억하는 것과 잘 듣는 것은 서로 다른 힘이란대. 천천히 치면 소리의 층과 작은 흔들림을 발견할 수 있어. 짧은 구절을 잘 만든 뒤 긴 문장에 다시 넣어 보렴.

연습은 같은 것을 오래 반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목표를 정하고, 짧게 나누고, 소리를 확인한 뒤 앞뒤와 연결하자. 속도는 안정된 움직임과 표현 위에서 자라난다.

생각해 볼 질문

오늘의 연습 목표는 '열 번 반복'만으로 충분할까?

정답

횟수에 더해 무엇을 바꿀지도 정하면 좋아. 예를 들어 선율을 더 잘 듣기, 박을 고르게 만들기 같은 목표야.

작은 연습 미션

짧은 구절 하나를 녹음하자. 잘된 점 하나와 바꿀 점 하나를 적고 다시 연주해 비교해 보렴.

마지막 화음, 이제 너의 이야기

코다에서 무대 밖으로



은호 마지막 화음을 치고 나니까 제 마음에도 힘이 남아요!

쇼팽 그 힘을 잘 간직하렴. 무대에서는 마지막 울림까지 듣고, 다음 날에는 다시 조용히 배우는 사람이 되자. 오늘 네가 들려준 폴로네이즈는 네가 발견한 이야기이기도 해.

코다는 곡의 끝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Op.53은 힘찬 마무리로 끝난다. 박과 울림을 끝까지 듣고, 페달과 손을 떼는 순간도 악보와 공간에 맞춰 생각하자.

생각해 볼 질문

마지막 건반을 누르면 듣기도 바로 끝날까?

정답

아니야. 마지막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음악에 귀 기울여 보자.

작은 연습 미션

연주를 마친 뒤 ‘내 폴로네이즈의 용기는 무엇이었나?’에 답해 보자. 정답 하나보다 네가 찾은 이야기가 중요해.

제작과 출처

기획 · 글 · 편집: Kwang Hee Yu

교육용 창작 대화와 연습 아이디어. 쇼팽과 은호의 만남은 허구이며, 대사는 쇼팽의 실제 말이나 편지가 아니다.

일러스트레이션: AI의 도움을 받아 제작. 악보 그림 대신 리듬 도식은 정확하게 별도 제작했다.

원작 음악: Frédéric Chopin, Polonaise in A-flat major, Op.53. 쇼팽의 원작 음악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이 책의 장면과 감정 해석은 작곡가가 특정 줄거리를 의도했다는 역사적 주장이 아니다.

본문은 1842년 작곡, 1843년 첫 출판이라는 일반적 설명을 따른다. 일부 목록은 작곡을 1842-1843년, 자필 악보는 1842?로 표기한다.

참고 자료

1. Fryderyk Chopin Institute / Chopin Competition: Polonaise in A flat major
2. Fryderyk Chopin Institute: Fryderyk Chopin biography
3. University of Chicago, Chopin Early Editions: Opus 53 catalogue
4. The Morgan Library & Museum: autograph manuscript, Op.53
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olish Music Center: Polonaise